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9월호가 나왔습니다.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 갯세마네 기도회

지난 토요일(8/17)부터 ‘갯세마네 기도회’ (매주 6시-7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남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 빛글 한국학교 개강안내

빛글 한국학교 가을학기 학생 모집을 합니다.
개강일시: 8/24(토) - 12/14(토) 16주간, 오전 9시부터 12시
*한글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도 모집합니다. 문의: 김 경집사 954-328-5187

• 남플 가을소풍/체육대회

날자/ 9월 2일(월)
장소/ Tradewinds Park/ Grandiosa Shelter
주소/ 3600 W Sample Rd, Coconut Creek, FL 33066 *문의- 윤성민 전도사

• 한미연회, 2040 'THE CONNECT' 집회

GMC 한미연회 주최, 아래의 'THE CONNECT' 집회에 20대부터 40대를 초대합니다. 이번 집회는 '복음본색'이란 주제 하에 영적 혼돈에 빠진 이 시대에 한미연회에 속한 2040 세대를 대상으로 영적각성을 이루며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가정을 세우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Children과 Youth/EM를 위한 집회도 함께 진행됨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간: 2024년 11월 27일(수) ~ 30일(토), 3박 4일간
*강사: 이성철 목사, 김다워 목사(선한목자 교회), 박위 송지은(Youtube 위라클, 가수), 김지연(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장소: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시카고), 1805 High Point Dr, Naperville, IL 60563
*신청: <https://theconnectministry.org>
*문의: 최기환 목사(630-797-8655)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10,805.00

Table with 2 columns: 헌금 유형 (일반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and 금액 (\$10,105.00, \$30.00, \$670.00) and breakdown details.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3권 33호
2024년 8월 18일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세번째주일 > 예배순서

- | | |
|--------------------------------|---|
| 1부(8:00am) | 2부(10:30am) |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인도자 Presider |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32장 |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5번 |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세,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
| ▲ 영광송 Gloria / 5장 | |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 다같이 |
| 찬송 Hymn / 300장 (통406) | 내 맘이 낙심되며
(Just when I am disheartened) |
| 기도 Prayer / 이운섭 장로 | 기도 Prayer/ 구자현 장로 |
|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 - 시편 23편 - | - 시편 23편 -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영상 광고 |
| ▲ 봉헌 Offering / |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 / 예레미야애가(Lam) 3:19-28

< 희망을 노래 하자! >

Let's sing of hope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 파송찬송 Closing Hymn/ 84장 (통96)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When earth lay captive to night)
- ▲ 축도 Benediction/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8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8월 18일	1부	믿음교구	담당자	이운섭장로	충성교구
	2부			구자현장로	
다음주 8월 25일	1부	믿음교구	담당자	최혜영권사	믿음교구
	2부			정복순권사	

금주의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애3:33)

*인용성구/ 마10:29 골1:24 벤전5:10

2024 남플 가을 소풍 체육대회



9월 2일 (월) 10:00 **청림 믿음, 드림, 소망, S교구**
Tradewinds Park **백림 온유, 충성, 은혜, 사랑**
Grandiosa shelter

행사를 위한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윤성민 전도사

금주 애찬 섬김

금주 (8월 18일)	다음주 (8월 25일)
박인숙장로	박홍근집사
범사감사	범사감사
충성교구	믿음교구

29년 전, 유학을 와서 처음 산 차가 중고 올스모빌(\$3,000)이었는데, 지난 세월 여러 대의 차를 바꿨지만, 자주색의 그 차만큼 내 마음을 설레게 한 차는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맥도날 햄버거도 특식으로 먹던 그 시절, 안전벨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당시 나는 승관이 되지 않아서 그냥 다니다가 95불짜리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었으나, 그걸 수업료 삼고 그 날부터 지금까지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고 운전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 안전벨트가 몸에 익숙하게 되는 과정과 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막4:35-37).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배에 물이 차게 되었고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딴 세상 사람 인양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그들이 흔들려 깨우자 비로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즉각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게 자연법칙으로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막4:39).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복음과 치유사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아마도 주님께 물려드는 군중의 질서를 잡고 안내하며 몹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군중을 보며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관중이란 말도 있는데, 세상의 관심을 받을 때 누구나 마음이 들뜨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사회에서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이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주께 몰려오는 수많은 우리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추측컨대 전에 없던 관심을 받은 그들은 그 날 호수를 건널 때, 그 날 거버나움에 모인 그 큰 무리를 생각하며 우쭐한 마음에 소위 ‘성공’이란 것을 꿈꾸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증거가 제자들이 후에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날 저물 때 그들에게 임한 풍랑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지으신 일’ (전3:11)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갈릴리 호수는 일반적으로 호수가 다 그렇듯, 바다와 달라서 일반적으로 광풍이나 노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풍랑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던 때에 배를 삼킬 듯한 광풍이 불어 치면서 물이 배에 가득차서 침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삶의 위기란 일이 되는 듯 하고 평온할 때에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전10:12)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세상 일이 좀 잘 되어 서게 되면 흔히 안전벨트를 벗어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 불어 친 풍랑으로 밀미암아 갑자기 파산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섰을 때 특별히 주의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항상 자신의 영적 자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최고의 스타가 된 선수가 있는데, 올림픽 직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한 김예지 선수입니다. 김선수는 한국의 CBS와 나눈 전 화인터뷰에서 앵커가 “귀국에서 집에 가면 다섯 살 난 딸에게 뭐라 할 거냐?”는 질문을 받고 “민소야, 엄마 왔다” 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앵커가 “엄마 메달 땀다”고 말하지 않을 거냐고 유도했는데, 그는 그냥 “엄마 왔다” 라고 하겠다고 다시 확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감동적이었는데, 아이가 아직 메달이 뭣지도 모르거니와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기 목에 걸린 메달이 아니라 “엄마가 집에 왔다”는 사실 일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자리에 섰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 위치와 자신이 무얼 해야 하는 지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현)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온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온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1-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기스스탄-임다윗)